



송진우 교수의  
수습지관좌선법요 <22>  
(修習止觀坐禪法要)

제3장 기개(棄蓋) ①

# 청정한 본성 가리는 '五蓋'

所言棄蓋者 謂五蓋也 一棄貪欲蓋 前說外五塵中生欲 今約內意根中生欲 謂行者端坐修禪 心生欲覺 念相續 覆蓋善心 令不生長 覺已應棄

제3장 기개(棄蓋)에서는 오개(五蓋)를 버려야 한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여기에서 '개'는 혼탁한 번뇌가 우리의 청정한 본성을 가려버리는 것을 의미한다. 즉 '개'는 번뇌의 또 다른 명칭인 것이다.

오개는 탐욕개(貪慾蓋), 진에개(瞋恚蓋), 수면개(睡眠蓋), 도회개(持悔蓋), 의개(疑蓋) 등을 말한다. 이 다섯 가지 번뇌 때문에 우리의 자성정정심이 가려져 밝은 지혜가 환하게 드러나지 못한다.

앞에서 오욕을 꾸짖었던 것은 밖의 오진경계에 대한 욕구가 내 마음속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고, 지금 여기에서 오개를 버리라고 하는 것은 내적으로 외부 오진경계에 대한 욕구의 마음을 일으키지 말라는 뜻이다. 이렇게 할 경우 우리의 의식은 청정해지고, 의식이 청정해지면 올바른 도를 감당하고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오개 가운데 첫 번째 '탐욕개'는 앞에서 말했던 외부의 오진을 대상으로 탐욕을 일으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내오근(內五根)이 밖으로 외오진(外五塵)과 마주할 때 그에 대해서 일으키는 탐욕과 집착이다.

지금은 내적으로 의근(意根) 가운데서 밖으로 오진경계에 대해서 일으키는 탐욕의 편에서 하는 말인데, 목전의 오진은 우리 의식 속에 그림자로 나타나 그 실제없는 그림자의 과거모습을 추억할 뿐만 아니라, 아직 다가오지 않은 미래까지도 미리 분별한다.

비록 내오근이 외부의 오진을 부여잡고 분별없이 있는 그대로 대상을 받아들이는 것과는 동일하지 않지만, 내적으로 마음속으로 의식에서 망상이 무더기로 일어나 이로 인해 목전의 오진경계를 인식하고 분별하는데, 이것이 일종의 탐욕개이다. 그 때문에 마음속에서 일으키는 탐욕이라고 말한다.

수행자가 외적으로는 몸과 마음을 바르게

하고 단정히 앉아서, 다시 말해 구업과 의업을 고요하게 잠재운 상태에서 외적으로 위의를 갖추었다 해도 마음속에 망상의 의업이 어지럽게 일어나 사랑스러운 음성을 들으면 탐욕심을 일으키거나, 혹은 과거 보았던 미모가 단정한 사람을 추억하면서 그를 잊지 못하는 등의 사랑분별이 염념이 상속에 하면서 단정하지 않는 것을 비유하면 마치 폭포수와 같아서 전념과 후념이 한 줄라도 휴식하지 않는다.

이 같이 외적인 위의를 갖추었다 해도 내적으로 의식을 조복받지 못하면 우리가 본래 갖추고 있는 착한 마음이 망상 속에 침몰

스스로 외부오진에 대한 탐욕의 불길들 일으킨다면 모든 선법을 태우지 않을 수 있겠는가.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은 탐욕스러운 사람은 도와의 거리가 매우 멀다는 점이다.

대체로 탐욕은 갖가지 시끄러운 번뇌가 머무는 처소이고, 보리의 도는 갖가지 청정하고 인연한 마음이 안주하는 처소이다. 이처럼 한쪽은 더럽고 한쪽은 청정하며, 한쪽은 생사로 유전하고 한쪽은 열반의 길로 향하면서 피차의 간격이 천지차이로 달라 성인과 범부의 간격이 아득히 멀어지게 된다. 그 때문에 탐욕을 일으킨 사람은 도와의 거리가 매우 멀다고 말하였다.

구절은 도를 닦는 수행이라면 반드시 크게 부끄러운 마음과 공포심을 일으켜 중생이 미혹 속에 있는 것을 불쌍히 여기고 생사를 끝내지 못한 것을 탄식해야만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수행이라면 도업을 일찍 성취하도록 노력하여 반드시 탐욕을 버린 상태에서 발우를 지나 일체중생에게 복전과 이익이 되고 끝내는 삼계제물에 모범이 되어야만 한다. 그런데도 무엇 때문에 오욕과 육전에 끝없는 망상을 일으키고 있는가.

오욕 전체는 털끝만큼도 되돌아보지 않는 체 버려야만 되는데, 어찌하여 오욕경계를 일으키는 것을 다시 탐욕으로 구하려 하는가.

이런 수행인은 미혹한 가운데 감질이나 미혹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만 한다. 이를 비유하자면 여러척은 사람이 음식을 먹었다가 다시 토하는 것과 같다. 그것이 어찌 불쌍하고도 가소로운 일이 아니겠는가.

탐욕을 일으킬 때는 괴롭고, 욕구를 많이 충족할 때는 공포스러우며, 얻었던 욕구를 잃을 때는 번뇌가 뜨겁게 타오른다. 모든 중생을 살펴봐라. 그 어느 누구도 오욕을 탐에 하지 않는 사람이 있겠는가.

탐욕스러운 사람은 높은 산을 오르기도 하고, 먼 바다를 항해하기도 하며, 때로는 풍찬노숙을 하면서까지 탐욕을 추구하느라 잠도 설침 없이 분주하게 오락가락 한다. 설사 자기의 욕구를 채웠다 하더라도 공포와 두려움이 많고, 얻었던 물건을 다시 잃어버릴 때는 그 마음에 근심과 번뇌가 더욱 가득할 것이다.

이를 따라 관찰해보면 삼계 내에서는 쾌락을 즐길 곳이라고는 한 치의 땅도 없다. 모든 욕구의 환란이 이와 같은데 어떤 방법으로 탐욕을 버릴 수 있겠는가.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심오한 선정의 즐거움을 체득하면 탐욕의 망상에 속임을 당하지 않을 수 있리라.

■중앙승가대 교수

cafe.buddhanews.com/community/song

## 삼계 안에 쾌락을 즐길 곳이라곤 하나도 없어 선정 즐거움 체득땐 탐욕에 속임 당하지 않아

하여 지혜의 싹을 틔우고 자라나게 할 수가 없다. 이것은 실로 수행자에게 있어서 하나의 커다란 장애가 된다. 때문에 이러한 마음의 상태를 알았다면 그 즉시 탐욕을 제멸해야만 한다.

옛사람들은 이를 두고 말하기를 "망념이 일어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망념이 본래 없음을 깨닫는 것이 더럽기까와 염려하라"고 하였는데, 이는 반드시 일찍 깨닫고 급히 버려야만 한다는 의미이다.

所以者何 如術婆伽微心內發 尚能燒身 況復心生欲 而不燒諸善法 貪欲之人 去道甚遠 所以者何 欲爲種種亂住處 若心著欲 無由近道

탐욕의 망상은 해로움이 지극히 광대하다. 예를 들면 인도에는 술바가리는 음란한 여인이 있었다. 그녀는 내적으로 음욕심이 발동했을 뿐인데도 그 불길로 인해 자기의 몸이 타서 무너졌다고 한다. 하물며 마음속에서

만일 마음이 탐욕심으로 애착을 일으키게 된다면 올바른 도로 진수할 길이 없다. 그 때문에 계승에서는 말하기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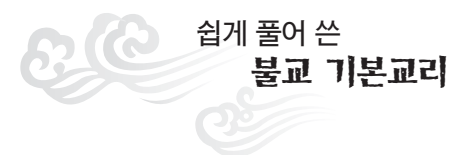
탐욕은 사나운 물과 같아 반야 나무더러 침몰 시킨다네 보리도를 수행하고자 한다면 탐욕을 버리고 진심을 보호하게나

라고 하였는데,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탐욕의 번뇌가 올바른 도로 방해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탐욕심을 극도로 조심해야 한다.

如除蓋說

入道慚愧人 持鉢福聚生 云何縱塵欲 沈沒於五情 已捨五欲樂 棄之而不顧 如何還欲得 如患自食吐 諸欲求時苦 得時多怖畏 失時懷熱惱 一切無樂處 諸欲患如是 以何能捨之 得深禪定樂 卽不爲所歎

'입도참괴인(入道慚愧人)'이라고 한 이



쉽게 풀어 쓴 불교 기본교리

### 무명과 악견의 상호관계

최초로 일으키는 무명은 사리(事理)에 미혹하여 어두운 상태이고, 악견은 미혹한 사리에 대해 잘못 이해하고 굳게 집착하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무명은 아직은 소극적인 상태이고, 악견은 좀 더 적극적인 상태로 진일보해 나아가는 과정입니다.

무명 때문에 사물의 이치를 미혹하여 깨닫지 못하고, 다시 무명에 의한 악견 때문에 미혹했던 사리에 대해 굳게 집착하여 끝내 올바른 근원으로 되돌아가지 못합니다. 무명은 모든 번뇌의 근원이지만, 악견 또한 모든 번뇌의 의지처가 된다는 사실은 참으로 흥미로운 일입니다. 이러한 악견의 집착 때문에 '탐진치만'의 '리는 근본번뇌를 일으켜, 이 때문에 올바른 이치가 가려지고 악한 행위는 이로 인해 더욱 치연하게 타오릅니다.

### 일체 악업의 근원은 번뇌

일체 모든 행위, 즉 업의 근원은 사리의 실체를 미혹한 번뇌가 근원이며, 근본번뇌는 모든 악업을 일으키는 시발점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유정들은 탐심의 번뇌 때문에 음행·도적질 등의 악업을 짓고, 진심 때문에 살생의 악업을 지으며, 치심 때문에 사탕 견해가 일어나고, 교만심 때문에 자신의 악업에 안주하면서 개과천선을 하지 않으며, 의심 때문에 올바른 도리를 따르지 않으며, 악견 때문에 다시 탐심·진심 등 일체의 번뇌가 상중작용을 일으키면서 더욱 치성하게 증가합니다. 이 때문에 악업이 간단없이 상중작용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알 수 있는 것은 삼악업(三惡業)도 그 중 어느 것도 번뇌의 미혹을 따라서 일어나지 않는 것이 없고, 어느 것도 번뇌를 따라서 악업을 성취하지 않는 것이 없다는 점입니다. 오늘날 세계는 국가 간의 탐욕·진심·어리석음·교만·의심·악견의 미혹 등이 원인이 되어, 이것이 다시 국가 간의 살생·도적질·음행·망어·양심·기어·탐욕·진심·사탕 견해 등 모든 악업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처럼 미혹의 번뇌에 따라서 모든 악업을 일으키는 기 때문에, 그 결과는 당연히 고통을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혹업'의 인과응화사상입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세간의 실상, 즉 '혹업'의 인과관계는 이같이 참혹한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유정들은 이러한 이치를 분명히 알고, 올바르게 실천 수행해야만 이득과득을 성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리=張如舟

## “신수비결”

2008년 무자년의 나의 운세

- 직업 운, 사업 운, 재물 운
- 이성과의 인연, 성적 및 진학 운
- 일진 및 외출하는 날
- 완전 한글만 사용하여 생년월일만 알면 누구든지
- 집에서 2008년의 운세를 볼 수 있음

적중률 90%가 넘는 신비의 비결로 완전 한글만 사용하여 생년월일만 알면,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한편의 책으로 완성하였고, 후대도 간편함.

- 신수비결 : 30,000 (삼만원)

## “이름대사전”

- 대법원 선정 인명용 한자만 사용
- 320여개의 성씨별로 상생과 수리오행, 삼원오행, 음명오행을 맞추고,
- 성씨별로 2000~3000여개의 이름들로 구성
- 개명, 작명, 상호, 법령 등에 바로 사용할 수 있음
- 이름대사전 : 50,000 (오만원)

※ 글로 쓰시기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 이름대사전 총정리 CD를 보급합니다. (정가 30만원)

## 효타암 주지 원공 합장

• 농협 121076-56-092613(손선미)  
부산 금정구 금사동 34-4 문의 : 051)524-9406

## “승기건강비법 [마·가·목] 신비의 나무”



강원도에는 옛부터 전해오는 속설에 노인이 마가목 지팡이를 짚으면 굳은 허리가 펴지고 아이를 못낳는 여인이 배반이 마가목 가지를 두기만 해도 수태를 한다는 신령한 나무로써 지금도 승가의 선원에서 참선수도하는 스님들은 기력을 돋우기 위해 마가목 차를 드시고 있으며 산승이 비법을 전수받아 갖가지 진귀한 열매와 약수로 맑고 향기롭게 정성껏 달여서 (1달분 60봉 두께 분량) 보시해 드릴 수 있습니다.

- 1988년 11월 6일 오전 6시 40분 - KBS-2 TV "건강하게 삼시다" (강원도 오대산 승가비법 약초기행 마가목을 찾아서)방영
- 2000년 10월 25일 수요일 - KBS-1 TV 아침방송 "무엇든 물어보세요" (나무차 소개)방영

### 본초강독, 동의보감 기록

첫째, 그 성질은 따뜻하여 몸이 쇠약하고 풍습비 해수 등을 다스리고 둘째, 허머리를 경계 하며 두뇌세포를 촉진 동풍, 신경통, 관절염, 기관지염, 방광염, 위염, 폐결핵, 팔다리가 저리거나 허리가 아프고 몸이 차고 냉한 사람 셋째, 중풍, 동맥경화, 고혈압, 풍 예방 및 기력을 돋우어 주어 신장(콩팥)을 튼튼하게 하고 피로를 제거하며 간장을 보호하고 보혈, 신기하약, 조갈증, 당뇨와 고지혈증에 특효 넷째, 불안, 우울, 불면증을 해소하여 골병이 든 어혈도 풀어주며 비만 체질(지방을 분해하여 살이 빠지며)과 성인병 예방 다섯째, 심장을 안정시키며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양기를 돋우어 숙취를 해소

※ 계절이 바뀌면서 체질변화로 인해 항상 피로하고 노곤하며 기운이 없는 사람에게 활력이 생깁니다. ◎ 약품은 아니며 체질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

“실험사례” 폐 식염수에 마가목 액을 섞었더니 맑게 정제가 됩니다. 즉, 민병의 근원인 혈액속의 콜레스테롤을 제거하여 미를 맑게 합니다.

경기도 양평군 용문산 도솔암  
전화번호 : (031)775-1285 저수 대진 합장

**“운명”을 읽고 나면 성공이 보인다!!!**

미움과 운명을 바꾸어 주는 책 ○ 오희규 실화소설

**운명**

■ 주요수속내용 ■  
금한이야기 성기가 맑을 만들어요 땀이 미칠게고 있어요 의처증 이야기 바퀴 놓고 생각하기 실수의 흔적 처제와의 불륜 육체란 무엇인가? 입시 이야기 성행수술이야기 제발 사정가고 싶어요 세번 결혼한 겁사남 일터와 세스의 비밀 남편과 제발 헤어지게 해주세요 두번 태어난 보일러공의 행복 성공하는 사람은 다르다 부자가 되고 싶으세요? 노처녀의 사랑이야기 넘치는 정력을 주재할 수 없어요 자신의 처지를 경허히 인정하라 운명을 바꾸는 법

■ 책속 부록 ■  
▶ 생일로 알 수 있는 내 몸의 건강  
▶ 권 애증의법  
▶ 미운 보는 법  
▶ 미운 보는 법  
▶ 시(時)로 보는 법  
▶ 불행도 손(손성) 보는 법  
▶ 심재법

전3권 완간기념 할인판매 50%

전집구입시 15,000원 후불제!  
**(062)266-1083, 266-6693**  
으로 전화주시면 책 먼저 보내드립니다  
입금계좌: (예금주: 오희규)  
농협 601175-52-016521

연락처(우편번호 500-500)  
광주광역시 북구 원동(영동)동374-2번지  
전화: 062-266-6693

서울·경기도 이현3동 818-22  
전화 (02)365-8172  
팩스 (02)365-8173  
홈페이지: www.ljnet.co.kr